

中東產油体制의 변화와 國際石油產業

中東石油은 지난 10년간에 메이저의 손을 떠나 產油國 수 증으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中東石油의 동향은 크게 변화되었으며, 그 영향은 向後에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初부터 시작된 石油 공급과잉하에서도 시장은 아주 무질서했던 것은 아니다. OPEC은 生産 上限을 설정, 各國별 生産 割當을 정해놓고 공급을 조정했는데, 市場 통제를 주도한 것은 사우디아라

비아이다. 그리고 최근의 過剩供給 下에서 보인 OPEC의 현실적인 자세는 石油市場의 안정화에 확실히 유리한 조건을 가져오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좌우하고 中東情勢가 안정화로 向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향후에도 中東의 石油공급에 크게 의존해야할 自由世界로서는 아직도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하겠다.

되었다. 中東石油事業의 대부분은 메이저의 손에서 產油國으로 넘어가게 됨으로써 메이저의 原油시장에 대한 지배는 이를 계기로 붕괴되었다.

그러면, 中東에 있어서의 변화가 세계의 石油공급에 어찌서 큰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第2次大戰後 메이저는 中東石油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生産을 개시했는데, 이들은 國際石油市場을 컨트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당시 中東에 있어서 原油生産은 各國에 1個社씩 설치된 合作投資會社에 의해 독점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各國의 合作投資會社에는 2개사 이상의 메이저가 여러가지 형태와 出資비율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관계는 복잡했으나, 이러한 共同生産시스템은 상호 原油공급을 체크하는데 적합했다.

사실, 이러한 1國1조인트벤처 시스템下에서 中東原油공급은 1950~1960년대에는 메이저에 의해 공동관리되는 형태였었다. 그리고

I. 國際石油市場에서의 中東原油

이 논문에서는, 1970년대 이후 中東產油体制의 변화와 그것이 國際石油市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回的 石油危機가 발생했던 지난 10여년간에 中東의 原油生産供給시스템은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변동의 영향은 단순히 한 지역에 그치지 않고 國際石油市場 전체에 파급되어 왔다.

이러한 변동을 보이기 시작하기 이전, 中東產油國은 石油産業을

外國石油會社の 메이저에게 맡겨두고 있었다. 產出된 石油은 모두 메이저의 소유가 되어, 石油販賣權을 갖지 못한 產油國은 石油收入을 外國石油會社로부터 받아 왔다. 즉, 토지소유자로서 받는 利權料과 국가로서 징수하는 所得稅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諸國들은 1970년대 후반까지 石油産業을 하고 자체적으로 石油事業을 시작, 石油販賣者로서 국제시장에 새로 등장하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中東原油의 공급이 컨트롤됨으로써 당시 國際石油市場도 비교적 안정된 양상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中東原油의 컨트롤은, 國際石油市場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상황은 크게 변했다. 2회에 걸쳐 原油가격의 급등이 있었고, 잇달아 공급과잉과 과당경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第2次 石油危機 이후의 석유의 공급과잉은 세계대전후 유례를 볼 수 없는 것으로, 石油市場은 과거에 비해 매우 불안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不安定化의 배경은, 國際石油市場을 컨트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中東原油공급의 상황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1973년의 石油危機는, 이러한 시대의 변천을 상징하는 큰 사건이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이때 생긴 것은 아니며, 10여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것이다. 당시 이미 조짐을 보이고 있던 변화는 1973년을 계기로 한층 급속히 진전되었던 것이다.

다음에 주로 1973년 이후에 있어서 中東石油공급시스템의 변화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 검토해 본다.

었던 역할을 차츰 침식하기 시작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리비아에서의 獨立石油會社(非메이저石油會社)의 활동이, 메이저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었었나 하는 것은 다음에 인용하는 그 당시 엑슨의 社內文書を 보면 잘 알 수 있다.

「메이저는 그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美國,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메이저 7社가 공급하는 생산량의 세어는, 1967년의 74%에서 1971년에는 67%로 떨어질 것이다.

非메이저 石油會社는 아프리카에서 주요한 지위를 확보, 1967년에서 1971년에 걸친 伸張率의 70%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비아의 石油·天然가스생산은 향후 수년간에 크게 伸張하게 될 것이다. 이 原油生産의 새로운 증가분 대부분은, 國際石油거래의 「新參者」에 의해 占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販路확보도 못하고 中東에서의 이권도 갖고 있지 않다.」

여기에 지적된 바와 같이, 메이저는 中東을 발판으로 한 그들의 國際的 石油支配가 리비아의 대두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메이저에게 위협을 준 것은 產油國이 아니라 非메이저 石油會社였는데, 그 後 외국의 정세로 인해 產油國이 마침내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1969년 9월의 혁명에 의해 탄생한 리비아新政權은 石油價格인상을 요구하여 外國石油會社에 감산을 강요하거나, 일부 非메이저 會社의 국유화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1970년에 리비아原油는 감산을 하게 되었고, 獨立系 石油會社로부터의 도전은 不發로 끝나, 메이저의 심각한 염려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때, 리비아 新政權의

II. 第1次 石油危機와 資源國有化의 進展

1. 변화의 조짐

中東의 產油体制은 第1次 石油危機이후에 급속히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의 조짐은 60년대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그중에 2~3가지 두드러진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그 후의 변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中東의 原油生産·供給시스템 변화의 첫번째 계기가 된 것은 1968년의 OPEC결의였다.

「회원국의 石油정책에 관한 宣言의 성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결의는, 각국이 ① 石油를 가능한 한 자체적으로 직접, 探查개발할 것. ②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외국회사의 소유와 운영에 產油國이 참여하도록 가능한 한 노력할 것 등을 결정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유엔에서 가결된 「資源의 永久主權」 결의를 받아들여 產油諸國에 의한 구체적인 主權行使를 목표로 한 것으로서, 그 후 中

東에 있어서 產油國 주권확대의 움직임에 대해 최초의 계기를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결의에 따라, 中東產油國과 메이저의 교섭이 개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2년에 이르러 겨우 합의에 도달한 내용은 점진적인 것으로, 당장 中東產油体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메이저를 괴롭힌 심각한 문제는 다른 곳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즉, 리비아의 原油생산의 급증이 메이저優位の 石油체제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후 國際石油産業에 대변동을 가져온 發端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견해이다. 그런데 로열 더치/셸그룹會長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변화는 1960년대에 서서히 시작되었다. 변화는 새로운 산유국(리비아)으로부터 石油를 구입하던 많은 獨立系 中小石油會社가 石油市場에 침투하여, 메이저가 지배하고 있

急進政策은 메이저를 구한 셈이 되었는데, 그 영향은 다른 產油諸國에 파급되어, 그후 OPEC에 의한 가격인상 요구나 資源主權擴大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2. 第1次 石油危機의 개요

第1次 石油危機는 1973년 10월 7일에 시작된 아랍·이스라엘 戰爭에 의해 야기되었다. 아랍產油諸國은 石油를 무기로 이용, 減產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美國 등에 대한 禁輸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開戰이후 대체적인 經過는 다음과 같다.

10월 16日, 쿠웨이트에서 열린 OPEC 「灣岸」委員會는 石油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 날 이곳에서 열린 OPEC 石油相會議는 5%의 생산감축을 즉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내린 다음週부터 아랍6개국은 개별적으로 原油공급의 제한을 실행했다. 사우디, 쿠웨이트 등이 10% 감산했으며, 아랍 각국은 美國, 네덜란드에의 禁輸조치를 단행, 11월초까지 실질적으로 20% 가까이 공급이 감소되었다.

11월 4일에는 OPEC 石油相이 쿠웨이트에서 會合, 減產率을 25%로 올렸다. 12월 22日, 第37回 OPEC 總會가 테헤란에서 개최되어 公示價格의 130% 인상을 결정했다. 또한 아랍제국은 1974년 1월부터 減產率을 15%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1974년 3월 18日, 이라크와 리비아를 제외한 아랍제국은 對美禁輸를 중지했다.

위와 같은 짧은 기간중에 OPEC의 原油가격은 4 배로 올랐으나, 1973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세계의 原油生産量은(同年 9월에 비해) 평균 5%의 감소에 그쳤다. 이는, 아랍諸國이 생산을 19% 감축했으나, 그 일부는 非아랍諸國의 2%의 증산에 의해 補充되었기 때문이다. 증산한 非아랍제국에는 OPEC 회원국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禁輸期間中 美國에 대한 아랍產油의 공급은 중단되었으나, 이를 補充하기 위해 이란,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으로 부터의 輸入은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당시 OPEC의 통일행동은 생산면에는 미치지 못하고 價格面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어쨌든, OPEC에 의한 2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石油가격이 4 배나 뛰어 오르게 된 것은 과거엔 없었던 놀라운 일로서 풍부하고 저렴한 石油공급에 익숙했던 先進消費諸國에 큰 충격을 주었다.

原油價格 급등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혼란되어 대량의 달러가 產油國에 流入된 반면, 先進消費國은 貿易赤字와 經濟不振을 보였으며, 몇몇 국가에 정치위기를 가져오게 했다.

한편 產油諸國의 이러한 대폭적인 가격인상은 「開途國에 의한 輸出品의 실질가격의 長期下落傾向을 上向으로 바꾸는 일」에 있어서 OPEC의 큰 성공이었다. 그리고 당시 產油諸國의 주장은 1974년 5월, 유엔決議에도 다음과 같이 일부분이 채택되고 있다.

「開途國이 수출하는 원료, 1次 產品의 製品·半製品의 가격과, 그들이 輸入하는 製品·半製品 및 資本財의 가격사이에 공정한 관계를

세울 것」 OPEC이 이러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油價의 대폭 인상을 실시했기 때문에, 石油危機의 요인은 開途國의 資源主權의 주장이라는 설명이 당시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第1次 石油危機에는 적어도 또 하나의 측면이 있었다. 石油가격은 10년간 이상이나 弱勢, 또는 保合勢 경향을 계속 나타냈는데, 石油소비는 그간 급증했다는 점이 다.

이에 대해 石油의 신규발견 및 개발은 소비증가를 따르지 못하고, 수급관계는 팽박해지기 시작, 이런 면에서도 油價인상이 요구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메이저의 한 간부는 1974년 당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직면하는 에너지 문제가 단순히 단기적인 우발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일이다. 확실히 최근 2, 3년의 정치적 사건, 특히 1973년 10월의 아랍·이스라엘戰爭은 심한 石油부족과 가격급등을 가져왔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면, 오늘 날의 상황은 장기수급관계의 산물이다.」

사실상 油價인상은 수급관계에 있어서도 피할 수 없었다. 다만, 油價인상이 產油國의 정치적 사정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화는 과거에 비해 너무나 급격했던 것이다. 이 메이저 간부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특징을 짓고 있다. 「수년 걸려서 서서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었던 변화가 갑자기 수개월간에 우리들을 덮쳤다.」 다시말하면, 과거처럼 메이저에 의해 國際石油事業이 운영되고 있었다면 油價인

상은 서서히 행해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1973년에 國際石油事業은, 산유국에 의해 처음으로 큰 영향을 받아 급격한 변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때 성공을 거둔 產油國은 그 후 資源主權의 확대에 힘써 짧은 기간에 中東의 石油資源國有化를 완료했다. 第1次 石油危機는 그런 의미에서 변화가 시작된 시기였다.

3. 中東의 石油資源 國유화

第1次 石油危機를 계기로 中東 產油諸國의 石油資源 國유화에는 예상밖으로 급속히 진전되었다.

中東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부다비 등 4개국이 前부터 國유화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해, 「事業參與」로 일컬어지는 점진적인 部分 國유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第1次 石油危機를 계기로 中東에 있어서 國유화의 템포는 빨라졌다.

1973년 1월에 25%의 部分 國유화를 실시한 지 얼마 안되는 이들 4개국은, 1974년 1월부터 國有化率을 단숨에 60%로 올렸으며, 1975년말부터 1976년에 걸쳐, 사우디를 제외한 이들 국가들은 완전 國유화를 단행했다.

이러한 國유화의 템포는 1972년에 이들 국가들이 메이저와 합의한 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즉, 이들 국가들과 메이저와의 사이에 1972년에 체결된 「사업참여에 관한 一般協定」(리아드協定)에 의하면, 國有化率은 1973년부터 1978년까지 25%로 하고, 그 후 조금씩 끌어올려 1983년에 50%에 달하도록 정

해져 있었다.

이에 대해 실제적인 國유화는, 1983년에 예정되었던 것 이상으로 1974년에 이미 실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1976년에는 100% 國유화로 진전되었던 것이다.

또한 國유화가 지연된 사우디아라비아도, 2년후인 1978년에 메이저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國유화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는데, 그때의 합의에 의해 實質 國유화는 1976년 1월로 소급 실시하기로 되어, 다른 3개국과 보조를 맞추는 형태를 취했다.

完全 國유화에 따라 산유국은 모든 國內石油資源을 손에 넣어, 거기서 생산되는 石油은 산유국의 소유가 되었다. 산유국은 이것을 판매해서 石油收入을 얻게 되었는데, 그 가격을 政府販賣價格(GSP)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메이저 등의 國회사는 모든 石油資源과 생산설비가 접수되어, 형식상 그곳에서 석유사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메이저가 國유화 후에도 產油國에 남게 되는 경우에도 실질적 관계는 여하간에 형식상의 역할은 정부의 石油사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불과했다.

그러나 國유화가 너무 급속히 진전됨으로써 당시의 產油제국이 메이저 대신 石油産業을 영위하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에 당장은 과거처럼 메이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에 따라서는 原油産業에 한해 國유화 직후에(歐美人 기술자를 고용해서) 自力으로 운영을 한 경우도 있었으나, 판매에 對해서는 모든 국가가 메이저에게 계속 의존을 하고 있었다. 산유국은 시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하고 안정된 판로도 갖

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產油諸國은 完全 國유화와 병행해서 메이저와 原油長期販賣계약을 맺어, 대부분의 原油를 과거처럼 메이저와의 長期原油販賣계약의 내용은 산유국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다음 2가지 점은 모든 나라가 공통적이었다.

첫째로 產油國은 國유화한 石油의 대부분을 舊所有者인 메이저에게 계속 賣渡한다는 것, 둘째로 가격은 公式販賣價格(GSP)을 약간 하회한다는 것인데, 계약기간은 5년 정도지만 그 후 更新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장기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쿠웨이트의 事例로 알아본다.

쿠웨이트 石油의 舊所有者는 BP와 걸프였는데, 1975년말의 完全 國유화에 따라 兩社는 쿠웨이트 정부와 장기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兩社는 國유화 前의 구입량 140万 b/d중 96万b/d를 계속 買入하게 되었다.

쿠웨이트 정부는 나머지 量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販路를 개척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얼마 후 셀과 36万b/d를 판매할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그 이유는 셀이 걸프를 통해 쿠웨이트 原油의 공급을 30년 가까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쿠웨이트는 國有化 前과 비슷한 양의 原油를 메이저에게 매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격에 대해서는 公式價格에서 배럴당 15센트의 할인을 行함과 동시에, 지불에 대해서도 90日(보통 60일)의 延拂을 인정하여 다른 買主보다도 메이저를 우대했다.

原油생산에 대해서 쿠웨이트는 國營石油會社가 자체적으로 조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메이저로부터 10여명의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가 파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100여명의 歐美기술자가 國營石油會社에 의해 직접 고용되었다.

이처럼 中東石油의 소유자는 메이저에서부터 산유국으로 변했으나, 그 대부분은 여전히 메이저의 精製·販賣루트에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다시 말하면, 국유화 後에도 메이저에 의한 공급 컨트롤이 어느 정도 계속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급속한 국유화에도 불구하고 國際石油市場에서 큰 혼란을 避할 수 있었다.

1973年 이후, 中東의 페르시아灣 4개국의 石油국유화는 예상외로 급속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諸國의 石油事業은 완전 국유화 後에도 販賣面을 중심으로 계속 메이저에게 의존하게 되어, 메이저는 여전히 中東石油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유화에 의한 변화는, 石

油資源의 소유권이라는 형식 뿐이고 실질적인 변화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런 형태로 中東石油공급체제가 굳어지자, 국유화 後에도 國際石油市場에 있어 메이저의 지배력은 계속 유지되는 듯이 보였다. 또한 시장도 비교적 안정되었으며, 向後 수급이 逼迫하는 것은 1985年 傾이 될 것이라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이와 같은 예상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이란革命의 영향으로 國際石油市場은 1978년말부터 또 다시 價格急騰을 보였는데, 第2次 石油危機는 새로운 파문을 中東產油體制에 가져왔다.

이를 계기로 국유화 後 확립된 듯이 보였던 中東產油國과 메이저의 안정적 관계가 상당히 허물어졌으며, 그 영향은 메이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國際石油市場에까지 미치고 있다.

지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1,000萬b/d의 高水準으로 생산함과 동시에, 12월의 아부다비 OPEC 總會에서는 1979년말까지 公式價格(아라비안 라이트)을 14.55\$/B로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스파트價格은 1979년 6월에 35달러까지 상승하고 또한 公式價格도 同年末에는 24달러가 되었다.

第2次 石油危機라고 일컬어지는 이 價格急騰의 직접 원인이 이란 革命이었던 것은 틀림 없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의문이 남아 있다.

예컨대 「石油供給은 정말 부족했던 것인가?」하는 의문은 당초부터 끈질기게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第2次 石油危機때 스파트市場에서 일어난 買占事態가 수습된 後에 대량의 재고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어서 당시의 생산동향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78년말까지 증산하고 있었던 사우디는, 一轉해서 1979년 1월부터 7월까지 몇차례 감산을 행했는데 그동안 스파트價格은 3배로 인상되었던 것이다.

이중 공급부족 문제는 확실히 1979年 상반기, 특히 1/4분기에 수급관계는 어느 정도 타이트했다고 할 수 있다.

겨울철에 石油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것은 例年の 일인데, 石油수요가 1975년 이래 4년 연속 증가하는 한편, 前年の 생산억제로 재고는 低水準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공급량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어도 부족감이 있었을 것이다. 사실, 재고량이 급증한 것은 1979年 후반 이후이고 가격이 急騰한 상반기는

Ⅲ. 完全國有化 後에 있어서 中東石油體制의 변화

中東산유국은 국유화로 인해 石油의 소유권을 획득했으나, 판매 등의 石油事業에 대해서는 계속 메이저에게 의존했다. 그런데 국유화의 효과는 처음엔 형식면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나중엔 실질적인 면에도 확대되어 갔다. 즉, 산유국의 대부분은 메이저에의 의존을 탈피하고 石油販賣事業을 자체적으로 行하게 되었던 것이다. 中東에 있어서 原油공급체제의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第2次 石油危機中에 단숨에 진전되었다.

1. 第2次 石油危機의 개요

1978년에 시작된 이란革命이 계기가 되어 原油가격이 또 다시 급증했다.

1978年 후반에는 政情불안과 石油근로자의 파업 등으로 인해 이란의 石油수출이 急減됨으로써 10월부터 11월 사이에 原油 스파트價格은 배럴당 13달러에서 19달러로 상승했다.

또 다시 가격이 급등되는 것을 방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우디의 2회에 걸친 감산이 시장심리에 미친 영향은 크므로, 사우디의 감산이 第2次 石油危機의 한가지 요인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이러한 견해가 정확하다고 보면, 시장안정화의 방향으로 OPEC를 항상 리드해온 사우디의 1974년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으며, 사우디가 이런 행위로 나온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가지 추측이나 의논이 행해지고 있다.

당시 사우디 정부는, 高水準의 생산유지는 유전의 상황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명했는데, 단순한 기술적 이유에 의한 설명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했다.

그 후의 여러가지 분석에 의하면, 產油國의 감산이 항상 그런 것처럼, 당시 사우디의 감산도 그 배경에는 中東에 있어서 國際政治의 긴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1979년초에 이미 협약했던 中東 아랍諸國과 美國의 관계는, 3월의 이집트와 이스라엘 平和條約조인에 의해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다른 아랍諸國을 제외하고 單獨和平을 추진한 美國에 대해, 이집트 이외의 中東 아랍諸國은 강한 반발을 보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美國은 사우디에 增産압력을 가했으나, 親美的인 同國政府도 당시 이에 따르기는 정치적으로 곤란했다.

결국 사우디는 4월부터 감산을 한층 강화하여, 이미 1월에 950万 b/d로 감소한 原油生産上限을 850万 b/d로 끌어내렸다. 이 감산조치는 7월초에 해제되었는데, 그동안 原油 스파트價格은 急騰했던 것이다.

이처럼, 이란革命에 이어 아랍諸

國의 對美불만이 겹친 일이 石油의 공급불안과 價格急騰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第1次 石油危機와 마찬가지로 中東정치의 영향이 컸다.

2. 2차례 石油危機의 비교

2차례의 石油危機는 모두 中東 정세의 영향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雙方間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다.

우선 뚜렷한 차이는 油價인상의 경과였다. 1973년에는 겨우 2회의 產油諸國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약 3개월간에 油價는 4배 뛰어 올랐다.

이에 비해, 第2次 石油危機 당시, 산유국의 油價인상은 조심스럽게 행해졌다. 산유국은 스파트市場의 가격 인상에 따라 상당히 늦게 公式價格(GSP)을 인상했던 것이다.

예컨대 油價인상에 신중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를 보면, 아라비안라이트의 스파트價格은 1979년 6월까지의 약 8개월동안 3배(35달러)로 인상되었는데, 이에 대해 GSP가 34달러로 인상된 것은 1981년 10월이었다. 그것은 2년 이상이나 價格인상이 늦어진 셈인데, 그때 이미 스파트價格은 인하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여 GSP를 하회하게 되었다.

이때 다른 產油諸國은 그렇게 신중하지 않고 일찍 油價인상을 실시했으나, 그래도 스파트市場을 따른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OPEC는 스파트市場의 뒤를 쫓아 가격(GSP)을 인상했는데, 그 인상폭은 통일을 이루지 못했으며, 특히 사우디와 다른 OPE

C加盟國間의 인상속도의 차이로 인해 OPEC가격은 일시적으로 분열되었고, 이런 분열상태는 1981년 10월에 再統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第2次 石油危機에 있어서 OPEC가 가격인상때 취한 행동은 크게 다른데, 이는 일반적으로 OPEC의 石油가격 지배력이 약해진 결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완전국유화의 결과, 中東 產油체제는(적어도 형식상) 一變되었었으며, 그 영향은 무시할 수가 없다.

국유화 前에 일방적으로 油價인상을 강행했던 產油國이, 국유화 후에는 油價인상에 신중해진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국유화전의 產油國에서 石油事業을 하던 메이저는 그 정부에 대해 납세자의 위치에 있었다. 1973년에 OPEC가 일방적으로 油價를 인상한 것은 課稅參照價格으로서의 公示價格으로, 메이저의 被課稅利益算出上の 가격에 불과했다.

산유국의 石油收入은 증가되었는데, 메이저에 있어서도 油價인상은 유리한 것이었다. 油價인상으로 인한 產油國의 增收중에서 稅收의 증가는 메이저의 利益증가에 의해 생긴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試算에 의하면, 1974년 1월에 있어 메이저의 持分原油 1 배럴로부터의 이익은 1년전의 4배를 넘어, 國有化率이 높아짐으로써 持分原油가 감소된 것을 감안해도 OPEC原油의 이익은 2.5배로 증가된 계산이 나왔다. 당시, OPEC原油의 대부분은 메이저 系列內에서 정제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에, 計算대로의 이익을 취득하려면 油價

인상을 제품가격에 轉嫁할 필요가 있었으나, 수요관계 등으로 인해 이때의 公示價格 인상은 단순히 명목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메이저의 이익은 크게 증가되었는데, 그 중에는 OPEC 原油로부터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산유국과 메이저의 共通利害를 나타낸 것이라 하여, 메이저는 美國의 議會와 여론의 비판을 받았는데, 어쨌든 국유화 완료전에는, OPEC에 의한 油價인상으로 메이저도 이익배당을 직접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完全 國有化에 의해 이런 관계는 一變했다. 최초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고는 하지만, 산유국은 賣主, 메이저는 買主가 되었다.

산유국이 결정하는 가격은 정부販賣價格이 되었으며, 과거처럼 계산상의 가격이 아니었다. 그리고 油價의 인상은 買主側에 있어서 原油 入手코스트의 상승을 의미할 뿐이고, 메이저가 배당을 받을 여지는 없어졌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共通利害가 없어져, 일방적인 原油인상은 산유국에 있어서 곤란해졌는데, 그 곤란성은 메이저와의 관계가 긴밀할수록 컸을 것이다. 第2次 石油危機에 있어서 산유국이 油價인상때 취한 행동은 前回보다 신중한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특히 신중한 행동을 취했는데, 이러한 OPEC의 행동가운데 이상과 같은 국유화의 영향을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다.

3. 長期原油販賣契約의 해소

이상 언급한 것은 第2次 石油危機에 미친 국유화의 영향인데, 거

서 지적인 第1次危機와의 차이는, 다음에 언급하는 큰 변화에 비하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第2次 石油危機中の 큰 변화란, 사우디를 제외한 페르시아灣產油國이 메이저와의 長期原油판매계약을 취소한 일로, 이에 따라 이들 제국은 완전국유화 후에도 계속해 온 石油 판매에서의 메이저의존을 탈피하고 자신이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판매자가 되었다.

쿠웨이트의 예를 보면, 1979년말까지 同國 原油수출의 2/3는 메이저에게 가는 것으로, 모두가 長期판매계약에 의한 것이다. 쿠웨이트는 原油판매에서 메이저에게 의존해 왔는데 1980년에는 그 방침을 바꾸어, 메이저와의 장기계약에 의한 안정된 관계를 해소했다.

당시 BP와 걸프와는 1980년 3월까지, 셸과는 1981년 9월까지 장기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쿠웨이트는 이것을 모두 更新하지 않았거나 중도해약한 후, 非메이저 石油會社나 國營石油會社와의 거래에 중점을 두고 독자적으로 石油 판매사업을 운영할 방침을 굳혔던 것이다.

메이저와의 장기계약해소의 움직임은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다른 페르시아灣 諸國에도 퍼져, 이들 제국과 메이저가 國有化時에 확립한 안정적인 관계는 4년만에 무너졌다.

中東產油國의 대부분은 石油의 실질적인 판매자로서 국제시장에 새로 등장하였으며, 그 후 이들 諸國의 原油판매는 메이저徑由의 販路 대신, 단기계약이나 스파트 去來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메이저는 사우디를 제외한 全中東에서 原油의 안정적 調

達源을 잃게 되었다.

심각한 문제였으나 사우디에 기반이 있는 아람코 4社(엑슨, 모빌, 텍사코, 소칼)는 장기계약에 의한 안정적인 原油入手가 계속 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람코 4社와 非아람코 3社의 石油調達力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非아람코 메이저는 부족한 原油를 스파트거래 등으로 보충하게 되었으며, 中東原油지배를 전제로 한 전통적인 경영으로부터의 전환등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컨대 셸은 「柔軟한」사업경영을 최고방침으로 하여 변화하는 상황에의 적응에 힘썼는데, 이에 대해 同社 會長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메이저는 上流·下流部門에서 각각 자신들의 활동의 定義를 새롭게 내리고 있다. 메이저가 石油·가스생산에 있어서 개발부터 輸送, 精製, 販賣에 이르는 全分野에서 책임을 지고 있었던 시대에는, 어떤 부문에서의 손실은 다른 부문의 이익으로 배런스를 취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업의 각 분야가 각각 독자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즉, 셸의 사업에 있어서 각 분야는 一貫操業에 의하지 않고, 유연한 대응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이익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中東石油 경제의 변화는 메이저의 사업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러한 변동에 대해 유일한 예외는 사우디아라비아였다.

이 中東 최대의 산유국만은 메이저와의 장기계약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이저 4社의 합작회사인 아람코는 국유화 후에도 사우디의 서비스會社로서 존속하여

계속 原油 생산을 하고 있으며, 사우디는 販賣, 生産의 兩面에서 메이저에의 의존을 계속해 왔다.

메이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사우디와 餘他諸國, 안정된 原油 人手源을 가진 아랍코 메이저와 이를 잃어버린 非아랍코 메이저라고 하는 2가지 대비는 明瞭하다.

이처럼 다른 2가지 原油 供給 시스템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中東原油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메이저의 통제下에 있지 않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原油의 안정적 人手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아랍코 메이저도 사우디로부터의 原油¹ 구입량을 줄여 原油의 自産調達率을 낮춤으로써 原油 조달면에서 非아랍코 메이저와의 차이는 좁혀지고 있다.

IV. 變動의 의미와 에너지供給에의 영향

中東石油은 10年 가까운 세월이 걸려 메이저의 손을 떠나 産油國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中東石油의 흐름은 변화되었는데, 그것이 國際石油市場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또한 그 영향은 向後에도 오래 계속될 것이다.

우선, 中東石油의 대부분은 産油國 자체에서 단기계약, 또는 스파트로 거래하게 되었으며, 메이저가 직접 통제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초의 공급과잉하에서도 시장이 아주 무질서했던 것은 아니었다. 공급은 어느 정도 조정되었는데, 그 조정에서 있어서 새로운 판매자인 産油國의 역할은 두드러진 것이었다.

OPEC는 스파트市況을 살피면서 가격을 결정하거나, 上限産油量을

그것은 메이저가 고정적인 장기계약보다도 스파트로 原油를 입수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응하여 收入유지를 위해 메이저徑由外에도 판로를 求하려 하고 있다. 메이저와 사우디의 과거부터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쌍방이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産油國은 이제 실질적인 판매자가 되어 國際石油市場의 1개 구성원이 되고 있는데, 거래는 단기계약이나 스파트去來가 주류이고 이 경향이 반영되어, 스파트 價格動向은 市況指標로서 重視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많은 中東제국은 메이저 의존에서 탈피하여 자립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유일한 예외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코 메이저도 이런 경향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각국에 할당해서 공급을 조정, 石油市場의 안정에 힘썼는데, 이처럼 産油國에 의한 시장 조정을 리드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였다. 물론 사우디가 OPEC을 리드하는데 있어서 메이저의 협력이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즉, 아랍코 메이저에 의한 사우디로부터의 原油구입 감축은, 同國의 감산과 OPEC의 생산조정에 기여했으며 또한 시장통제에 관한 메이저와의 의견교환도 사우디에게 있어서 유익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실행을 위해서는 다른 會員諸國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실제적으로도 OPEC는 무질서한 증산과 價格인하 경쟁을 피해서 시장의 안정을 꾀한다는 현실적인 접근을 하기로 일치했다.

中東石油가 메이저의 지배에서 벗

어나고 國際石油市場의 공급과잉이 前에 없이 장기화되었던 때인 만큼, OPEC의 현실적 姿勢로 인해 혼란이 완화된 것은 인상적이었다.

OPEC의 자세가 현실화한 원인으로, 石油수요의 감퇴와 非OPEC 石油공급증가에 따른 그 지위의 저하 이외에, 産油國 스스로가 賣主로서 시장에 등장한 점이 중요하다. 시장에 있어서는 국가라 할지라도 현실적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최근의 공급과잉상황 하에서 보인 OPEC의 현실적인 자세는, 확실히 石油市場 안정화에 유리한 조건을 가져오고 있다.

다음엔, 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中東原油공급체제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최근, 국제시장에서 中東石油가 차지하는 위치가 변화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의 石油공급에 있어서 中東의 비중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중저하는 시장안정화를 위한 OPEC의 생산조정에 의한 것으로, 中東이 최대의 石油埋藏 지역이라는 것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自由世界 石油확인매장량의 60% 이상이 中東에 부존하며 그 생산 코스트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다. 低코스트의 中東石油은 국제경쟁력이 압도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資源量으로 봐도 自由世界가 石油에 의존하는 한 脫OPEC, 脫中東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 中東은 거대한 공급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中東의 石油사업에서 메이저가 손을 떼게 되고, 그 대신 開發途上國정부가 石油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는데, 이는 自由世界의 石油市

場에 새로운 不確實性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한 공급지역의 하나인 中東의 產油事業이 開發途上國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일 자체가 시장에 있어서 불안정 요인이 되기 쉽다.

產油國의 자세가 현실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부에는 민간기업과 다른 복잡한 이해와 목표가 있으므로, 정치적인 사정에 따라 공급이 좌우되는 것은 앞에 언급한 사우디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최대의 위험인 供給削減 사태는 이미 2회나 일어났는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또 한가지 요인은 中東產油國에 의한 무질서한 증산이다.

과거엔 그런 경험이 없었으나, 다

른 原油보다 低코스트의 中東原油가 수요관계를 무시하고 만일 대량으로 공급되는 경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은 확실하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는 OPEC으로부터 石油製品 공급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 시기에 中東產油諸國의 수출용 정유공장이 잇달아 완공되기 때문인데, 過剩設備을 갖고 있는 세계의 정유산업에의 영향과 向後 제품시장의 공급과잉, 過當競爭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리스크는 공급증단과 과잉공급의 2가지 방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위험은 產油國의 자세가 합리적·현실적이 된 현재 切迫한 것은 아니지만, 向後 產油國의 합리적 行動이 정치적으로 방해

를 받거나, 정치체제가 변화하는 일이 생기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아직도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을 좌우하고 있는 中東情勢는 안정화로 향해 가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특히 과거에는 「페르샤灣의 警察官」으로서 現體制를 지키는 입장에 있었던 이란이 革命 이후엔 穩健派 產油國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自由世界는 그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공급의 일부를 中東에 의존하고 向後에도 계속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주간石油뉴스)

□ 石油短信 □

石油價 引下압력가중

美國의 셸 오일社는 지난 1월 19일 油種에 따라 油價를 배럴당 1~1.5달러 인하했다. 또 싱가포르 現物시장에서는 이날 아라비아 輕質油가 油價인하방지를 위해 심리적으로 중요한 배럴당 28달러선 이하에서 거래됐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產油쿼터를 위반, 초과생산하고 있으며 공공연히 원유를 할인판매함으로써 OPEC(석유수출국기구) 油價에 대한 引下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셸오일社는 西部텍사스產 中質油(WTI) 및 西部텍사스產 重質油(WTS)를 배럴당 각각 1달러씩 인하, 28달러 및 27.35달러로 결정했으며 南部루이지애나產 輕質油 및 重質油는 배럴당 1.5달러씩 인하, 27.85달러 및 26.85달러로 결정했다. 셸오일社는 또 北알레스카產 (ANS) 原油가격을 배럴당 1달러 인하했다.

또 아시아지역에서의 油價추이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싱가포르 現物시장에서는 19일 아라비아 경질유가 심리적으로 중요한 배럴당 28달러선 이하인 27.95달러로 거래됨으로써 油價인하사태가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싱가포르 現物시장에서 아라비아경질유는 지난 10여일간 ▲북반구에 몰아닥친 강추위 ▲이란·이라크戰으로 인한 양국의 원유공급 감소 ▲OPEC회원국들의 產油量감축노력등에 힘입어 배럴당 28달러선을 웃돌았다.

이외에도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이지리아가 하루 1백45만배럴로 책정돼 있는 產油쿼터를 어기고 하루 1백6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데다 이를 할인판매하고 있어 석유시장을 더욱 침체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다.